

(지 면) 2024. 5. 10.(금) 조간

(인터넷) 2024. 5. 9.(목) 11:00

## 매월 둘째 주 금·토·일요일은 전통시장 가는 날!

- 중기부·농식품부 전통시장 납품단가 지원 정례화 및 전국 확대 추진
- 5월 10일부터 5월 12일, 전국 34개 전통시장에 참외 납품단가 지원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강해수)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을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하여 전국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전통시장은 결제용 포스(POS) 부재, 복잡한 납품경로 등에 따라 납품단가 지원이 어려웠으나, 중기부와 농식품부는 상인연합회 등과 적극 협력하여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서울의 18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두 차례 납품단가 지원을 실시했다.

중기부와 농식품부는 전통시장 납품단가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정기적인 사업으로 발전시켜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매월 둘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일간을 「전통시장가는 날!」로 정하고, 전국의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제철 농산물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오늘(9일)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34개소를 대상으로 5월 제철 농산물인 참외에 대한 납품단가 지원을 추진한다. 금번에는 참외 주산지인 성주의 농협조공법인이 전통시장으로 직접 참외를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성주 참외 공판장의 평균 경락가격에 농식품부의 납품단가 지원 할인(2,000원/kg)이 적용된 저렴한 가격으로 참외를 공급받아 보다 저렴하게 참외를 판매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전통시장 가는 날!」 기간에 맞춰 전국 모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5월 동행축제 홍보 콘텐츠를 SNS에 공유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증정 이벤트도 진행(5.8~14, 총 100명)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행사는 단순히 농산물 물가부담 완화 뿐 아니라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매출을 상승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전통시장 가는 날!」에 맞춰 중기부의 온누리상품권 판매 촉진 활동 등 전통시장 지원 정책을 함께 추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전통시장 가는 날!」을 통해 전통시장 방문객의 먹거리 물가부담 완화가 기대된다.”면서, “중기부와 지속 협력하여 참여 시장 확대, 지원 품목 다변화 등을 통해 농산물 체감물가 완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책임자	과 장	안원호 (044-204-7890)
		담당자	사무관	유주현 (044-204-7901)
담당 부서 <총괄>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강혜영 (044-201-2211)
		담당자	서기관	정성수 (044-201-2223)
담당부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책임자	과 장	신훈묵 (032-450-1151)
		담당자	주무관	한지연 (032-450-1140)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